전주비전대 간호학부, 교수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26일 멀티실습실에서 '10대 SUNRise-Vision' 구축을 위한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간호교육 인증 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추가된 역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구체화하고,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재현 간호학부장은 "간호학부 교수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역량과 비전을 갖춘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Vision Planter(꿈을 심는 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힘있게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춘향 라이온스클럽, 노암동에 삼계탕 전달

남원시 노암동(동장 임점숙)은 중복을 맞아 춘향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연임)에서 삼계탕100인분을 전달해 노암동 홀로어르신 들의 면역력 증강과 무더위 극복을 위한 여름철 보양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연임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에 더 많은 관심과 꾸준한 봉사 실천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점숙 노암동장은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지원해준 남원춘향 라이온스클럽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복지실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설천면주민자치위, 태권도원 직원 격려

무주군 설천면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6일 중복을 맞아 태권도원 직원들을 위문 격려했다.

무더위에도 불구, 태권도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삶은 옥수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설천면 주민자치위 서병국 위원장은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태권사관학교 유치를 염원하는 면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 신평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신평면이 여름 휴가철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인 대리보, 호원교, 용암보, 학암보 등 총 4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4명을 배치했다.

안전관리 요원들은 내달 28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등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김기환 신평면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물 관리에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종권 사진작가, 전북대병원에 작품 기증

병원서 전시 중인 40여점 환우 · 내방객 문화적 향유 · 힐링 위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인 전종권 작가가 사진작품 40여 점을 병원에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종권 작가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복도와 본관 2층 정신건강의학과 복도에서 현대의 풍경전 '빛 그리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 작가는 전북대병원에서 전시중인 작품 40여 점을 병마와 싸우는 환우와 내방객, 직원들의 문화적 향유를 고취하고 희망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기증했다.

전종권 작가는 "이번에 기증한 작품들은 사진과 그림의 경계를 넘어서며 삶의 이야기와 생명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며 "이 작품들의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기증해주신 소중한 사진작품은 병원의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직원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은 물론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종권 작가는 1992년부터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해 전라북도 사진대전 초대작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32회 전라북도 사진대전 대상, 제3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대상, 한국작가협회 사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김윤상기자

제25회 영 · 호남 자연보호 공동세미나 성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회장 정창수)는 경상남도협의회(회장 이무훈)와 함께 26, 27일 양일간 익산 궁웨딩홀에서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자연보호 영·호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연보호 헌장 낭독과 정헌율 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첫날 영·호남 공동 세미나는 △자연보호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 △전 서해대학교 총장인 서동석교수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특강 △전 서남대학교 교수인 권영호교수의 환경과 미래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에는 참가자 전원이 익산미륵사지를 비롯한 익산 일원의 문화재를 탐방하며 상호 이해의 장을 넓혔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 정창수 회장은 "자연환경인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생활공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국가 건설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익산협의회 김석태 회장은 "자연보호 회원들의 이론 무장을 도모해 지구환경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환경을 위한 자연보호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녹색성장 국민운동으로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들에 삼계탕 나눔행사 마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7일 전주제자교회(담임목사 박용태)의 후원을 받아 5개국 40여 명의 유학생에게 삼계탕 나눔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전주제자교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방학 중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수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유학생 짠티이선(경영학과 3년) 학생은 "우리 주변에 유학생들을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다"며, "복날에 대해 잘 몰랐는데 무더위에 건강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 알게 됐고, 전주에서 처음 먹는 삼계탕은 정말 맛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기 전주대 국제교류원장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격려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유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유학생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장은성 기자

효자2동 자율방재단, 노인요양시설 여름 이불 기부

전주시 효자2동 자율방재단(단장 김인순)이 27일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여름이불을 기부했다.

이날 자율방재단원 10명은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원한 여름이불 10채를 전달했다.

김인순 단장은 "작은 기부이지만 노인 환자들이 무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자2동 자율방재단은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캠페인, 에스컬레이터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산동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남원시 산동면 김경숙 면장이 지난 25일부터 취약계층,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등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1일 1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통행정을 통한 주민 문제해결을 찾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면장이 직접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을 매일 찾아 행정적으로 불편하거나 사회적 고립과 위험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점검해 처리하는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은 처음으로, 김 면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일선행정과 촘촘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으로 따뜻함을 보살피는 행정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련마을 지역주민은 "면장님께서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직접 방문해 영양상태, 건강상태, 애로사항을 들어주신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자1동 지사협, 취약계층 이불 빨래 봉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순자)는 27일 관내 홀로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거동이 불편한 관내 취약계층 33세대를 대상으로 이불 빨래 서비스를 실시했다.

크린토피아 전주지사(지사장 김용진)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세탁봉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각 세대를 방문해 가구당 겨울이불 2채씩을 수거하고 크린토피아에 전달 후 완성된 세탁물을 배달해주는 방문서비스를 진행했다.

크린토피아 전주지사 김용진 지사장은 효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으로 수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 서비스를 후원해왔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순자 효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불세탁 봉사를 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이번 이불 빨래 봉사를 적극 후원해 주신 크린토피아 전주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김제 만경읍, 농지위원회 설치 · 운영

김제시 만경읍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별도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농지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만경읍 농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규칙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사항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심의기구다.

만경읍은 기존 농지 취득 자격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해남 만경읍장 직무대리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중복 맞이 삼계탕 나눔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한갑수)이 지난 26일 중복을 맞아 지역 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더위야! 물렀거라; 이열치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 식사 나눔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른 무더위로 지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후원 물품(쌀 100kg, 닭 20kg)을 지원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또한,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와 학생 자원봉사자가 합심하여 진행을 도와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본사 내방

▲우범기 전주시장